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2호 [루계 제25811호] 주제 106 (2017)년 10월 29일 (일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공장의 전형단위, 표준  
으로 홀륭히 전변된 평양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안정수동지와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  
들이 김여정동지, 조용원동지  
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양시  
위원회 위원장 김수길동지를  
비롯한 해당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2015년 2월 평양화장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도와주겠으니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현대적인  
공장으로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하시면서 개건형성안은 물론  
마크, 상표도안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도해주시고 강력한  
건설력량과 과학기술력량, 자재  
보장대책까지 물소 세워주시었  
을뿐만아니라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안목을 희워주시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  
품들도 수많이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꽂아우기 위해 한 사람같이 펼쳐나선  
해당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종업원들,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들은 연간축면적  
2만 9,200여 m<sup>2</sup>의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281종에 1,122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흔히 갖추어놓았으며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  
함으로써 공장을 년간 화장품 1,500만  
개, 화장품 용기 1,000만개, 세수비누  
2,000t을 생산하는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화장품생산기지로 전변시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화장품을 마련해주시려고》를 보신 다음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03년  
8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화들을 한상  
한상 주의깊게 보시면서 우리 장군께서  
홀륭히 전변된 공장을 돌아보시였으면  
대단히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평양화장품공장의  
곳곳마다에 어려있다고 하시  
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  
들은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교시를 언제나 잊지 말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  
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통합생산지령실, 화장품직장,  
비누직장, 화장품용기직장,  
도안창작실, 화장품연구소,  
화장품분석소, 과학기술  
보급실, 제품견본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정형과 생산 및 연구실태, 제품  
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뢰하시였다.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통합생산 및  
경영정보판리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피부보호 및 기능성화장품,  
분장용화장품, 머리칼화장품,  
세척용화장품을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따라 여러가지  
로 생산할 수 있게 원료배합,  
주입, 포장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  
다고, 화장품용기생산공정에서 줄지어  
나오는 용기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 1면에서 계속

공장을 개건하면서 새로 설치한 현대적인 설비들 중 84%에 달하는 137종에 814대는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과학연구기판들과 협력하여 자체로 제작

설치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으며 바닥과 벽체를 에폭시수지와 아크릴수지 칠감으로 마감하니 일터가 깨끗하고 정갈하며 환하다고, 마음에 들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과학기술학습을 짜고들고 있는 것은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였다.

도안 창작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면서 화장품은 질이 좋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용기의 모양과 상표, 포장파이 눈에 확 안겨오면서도 구매자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만큼 좋은 도안들을 창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성과속에는 해당 단위의 공장, 기업소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자금, 자족하도록 정책적지도를 잘하고 있는 경영부문, 지도일군들의 투쟁기풍과 투쟁분위가 깃들어 있다고 하시였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모든 생산현장과 복도를 유리칸막이로

격폐시키고 위생통과실을 새로 꾸려놓았

을 뿐만 아니라 성능이 높은 공기조화기

로 평가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화방지크림, 미백살결물, 여드름치료크림, 머리칼고착제 등을 새로 연구개발하였는데 평양화장품공장은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치된 기술집약형 산업의 본보기공장, 우리 나라 화장품산업의 중심으로 전변되었다고 하시였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화장품들의 가지수도 많고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파들도 참

꼽고자 못내 기뻐하시면서 보다 아름다워 지려는 너성들의 꿈을 실현시켜줄수 있게 되었다고,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된 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세계적수준의 화장품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너성들,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이 생산구역, 교양구역, 생활구역이 명백히 구분되고 모든 건축물들이

록색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꾸려졌으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벗어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세상이 보란듯이 번듯하게 개건해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장품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소비품의 하나

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기호와 특성, 다양한 취미에 맞고 세계적으로 이를 난 화장품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여러분이 종류의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대한 문제, 이빠진 공정을 찾아내어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는데 대한 문제, 다른 나라 화장품산업의 현황자료들과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전망적으로 우리 나라 화장품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울데 대한 문제, 원료, 자재, 첨가제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며 여러가지 향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2단계 생산공정현대화과업을 현지에서 직접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질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대적으로 개건된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인민 대중제 일주의를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 일군들이 현신한 것 만큼 인민의 웃음소리 높아진다

장 진 군 당 위 원 회 사 업 에 서

두께 산물 장전군이 천지개벽 되고 있다. 땅도 그 땅, 사람도 그 사람! 이건 단지 지난해와 올해가 다르게,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모되고 눈부신 명성이 산불사람들의 생활에 거칠없이 들어온 것이다.

천지개벽에는 그를 안아온 추동력이 있거니와,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티끌을 제거하여 난방보장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나아 할 투쟁구호입니다.

몇 해째 리용하지 못하는 문화회관의 실태가 새로 임명된 리용상당원장의 마음을 험변에 했다. 문화생활원장을 보면 치 못하니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놀라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문화관을 뜻들어지게 개관하자.

새로 건설하는 끝나니 맞먹는 문화회관 건물을 단 몇 달동안에 끌어내고 군당책임일군이 세기 했을 때 놀라운 일군들이 더 많았다.

인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길은 열린다.

공사가 시작되었다. 군당위원회는 끝나니 맞먹는 일군들이 밤낮으로 건설대원들이 밤낮으로 건강한 전통을 보장하였다. 수백개의 관람의 자는 군에 혼란 자체를 리용하여 차제로 제작설치하고 현대적 미감이 나게 장식처리하며 조명 및 음향설비들로 높은 수준에서 갖추게 하는 등 군당책임일군들의 요구성은 높았다.

그해 10월 새 문화회관에서

첫 모임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짐돌에 배수로를 깊숙이 채고 전장길을 걸어세와 걸마다 석비 레다짐까지 한 새 동네에 입사 하던 날 사람들은 눈물을 적시며 웃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실천으로 받드는 당일군들이 기적을 암아 왔다고.

인민의 웃음에는 자그마한 구김살도 없어야 한다. 한자례, 두 차례 예술공연이며 모임을 진행 할수록 군당책임일군의 자세은 커졌다. 추위가 심한 고산지대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보장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한 것 때문이었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나아 할 투쟁구호입니다.

몇 해째 리용하지 못하는 문화회관의 실태가 새로 임명된 리용상당원장의 마음을 험변에 했다. 문화생활원장을 보면 치 못하니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놀라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문화관을 뜻들어지게 개관하자.

새로 건설하는 끝나니 맞먹는 문화회관 건물을 단 몇 달동안에 끌어내고 군당책임일군이 세기 했을 때 놀라운 일군들이 더 많았다.

인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길은 열린다.

공사가 시작되었다. 군당위원회는 끝나니 맞먹는 일군들이 밤낮으로 건설대원들이 밤낮으로 건강한 전통을 보장하였다. 수백개의 관람의 자는 군에 혼란 자체를 리용하여 차제로 제작설치하고 현대적 미감이 나게 장식처리하며 조명 및 음향설비들로 높은 수준에서 갖추게 하는 등 군당책임일군들의 요구성은 높았다.

그해 10월 새 문화회관에서

진단해 10월 말 깊은 밤 훌부분 송악이 두면째로 무너졌다. 그때에는 군당책임일군도 눈앞이 침침했다. 나무많은 너울원전까지 스스로 밤을 새워가며 칠판에 숯불을 피워 습기를 없애면서 내부마감공사에 떨쳐나섰다.

지난해 12월 제육원이 도적으로 인본보기로 훌륭히 일했다. 그때 군당책임일군의 심증에서 자기자신과의 힘겨울 전투가 벌어지는지를 누구도 몰랐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더 좋으셨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심장의 고백이 광광격 향을 일으키며 울려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아들이나 라를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며세울수만 있다면 한동이 설사 한 달의 고애임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로 뿐이 아니었다. 당시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에 금이 가게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군당집행위원회에서 군당책임일군이 현대적인 체육관을 반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하는 안을 내놓았을 때 참가자들도 모두가 우려했다. 불가능하다. 되지도 않을 일을 벌려놓았다가 일군들에게 더 큰 실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부 군당책임일군들까지도 반대해 나섰다. 체육관건설을 당시에 책임인 군당책임일군에게 신심이 없어졌다. 결정으로 끌나지 않았다는 하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공사가 시작된 건설장에서 군당위원회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을 일상으로 일과 함께 일터를 풀려온 일군들이 일정에서 서서 일며세울 린산고급중학교, 서고목공중학교, 청학원용품공장, 식료공장이 단두달동안 훌륭히 개선되었다.

참으로 불같은 현신의 나날이 훌려갔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군당책임일군이 힘들어졌다.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 개의 나무다리가 훈련트리트리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종이풀과 물에 젖어 있던 일군들이 보면 신심을 잃을까봐 군당위원회 회장이 일군들을 통원하여 날뛰기 전에 무너진 것을 전부 걸어내고 전문설계가들의 방조밀에 혁학계산을 다시 하면서 철근에 물에 젖어 있던 일군들에게 불편을 주면 상평다리, 제원다리를 비롯한 여러 개의 나무다리가 훈련트리트리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 사동구역 송신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원회 일군들

사동구역 송신남새전문협동농장 초급당원회 일군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열판리공 신일철동우이다.

그러면 왜 그를 자주 만나는가. 우리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은 신동무의 가슴을 울리었다. 하여 그는 보이려면 그에 대한 조언과 전투에 대한 조언을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은 당시에 조선민족혁명전쟁이 아니었다. 일군들 속에서 조건이 불리하니 할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던 판교군민에 대한 하락과 함께 일군들은 각자에게 힘을 주기로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인민을 끌어들이고 존중하고 인민의 리의 경지에서 다시한 번 생각해보자.

당 조직에서 힘 밀어주겠으니 대답하게 보이려는 대조조를 개조해보자는 초급당원군의 절절한 호소는 신동무의 가슴을 울리었다. 그때부터 초급당원군의 말걸음은 그가 일하는 보이리로 자주 향해졌다.

현장에 찾아가 힘들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힘을 주기도 하며 보르는 것이 많아 안타깝다는 그의 말을 듣고 새 기술자료들도 안겨 주었다. 또 언제인가는 철원과 용접봉이 끌린다는 것을 알고 현장단위들을 찾아가 힘들지 않게 했던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방조속에 신동무는 끝나니 찾다보는 새 기술자료들도 안겨 주었다. 또 언제인가는 철원과 용접봉이 끌린다는 것을 알고 현장단위들을 찾아가 힘들지 않게 했던 것이다.

몇 해 전 농장에서는 문화후생시설을 건설하였다. 그런데 생활방식은 문화후생시설을 찾았던 그들이 많지 않았다. 한 중간의 운동이 활동되었지만 그들은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시원치 못했다. 무연련을 매기 전에는 보이리의 온도를 더 이상 올리게 되었다. 그로부터 일군들은 철원과 용접봉이 끌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않고 일하는 일군들이 일상으로 빠듯하게 교체되었고 수도관이 남아 어려운 통안 물공장을 겪어온 100여세대의 이야기는 옛날로 되었다.

행복과 기쁨에 넘친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멀사복무의 열도를 제는 척도이다. 하루도 일어나지

#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

각자 독자들이 보내온 문예 작품들을 보고

인민은 문학에 술의 황유자일 뿐이었다.

우리 인민은 격동적인 난대마다에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면서 혁명적인 사상과 신념, 뜨거운 열정을 시를 비롯한 문학에 출작 품에 담아 노래하였다.

지난 9월부터 본사편집국으로는 전국 각지에서 보낸 문예 작품들이 수많이 와왔다.

이것을 두고 어떤 칭찬과 함께 그것을 무려 100편이나 되었다.

『최고사령관기발』, 『승리는 우리 것』이다, 『블로 더 힘』, 『백승을 떨치는 혁강국』, 『병사의 모습』...

참으로 놀라웠다. 아마 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작가가 그렇듯 짧은 시간에 그처럼 분위기를 알아보느라 우리 인민의 격앙된 정신세계에 어려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에서 감히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헤쳐

내려다보며 악마에 대한 치솟는

본성과 맑랑의 불가피성, 우리

승리의 평생적 요인들에 대하

여 다양한 양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독자들의 편지와 문예 작품들은 이 시각으로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강조하고 말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으로 될 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당의 밀집과 사랑,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기초한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대오의 공고성과 위력의 원천이 있으며 모든 승리의 기본담보가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난 9월 미국의 늙다리미치 광이 유엔 무대에서 공화국을 『완전과 평화』 하겠다고 지껄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그날 아침 일찍 신문사에 찾아온 주민이 있었다. 만경대 구역 총연 1동에서 사는 한성봉주

신통하게 엮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미제 야수들에게 폭탄처럼 안겨주고 싶어 보낸다고 하면서 평양시 대동강구역 통문 1동의 한 너성이 부친 편지도 정말 감동적이었다.

이들의 편지와 작품들을 통하여 그 시각은 나라 가정들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들과 열띤 분위기를 알아보느라 우리 인민의 격앙된 정신세계에 어려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

핵 폭탄보다도 로켓보다도 더 무서운 우리 당과 인민의 단결된 힘을 세상 그 누구나 당할 수 있으려고 했던 것이다.

대동강구역 통과 2동의 한 너성이 보내온 이 시작품의 한글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역사의 본질을 풀수록 험난한 한글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그가 당할 수 있는 한글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놓았다.

『김정은 장군 만세!』, 『우리 새 세상 제일세!』, 『고마움의 찬가』 등 결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청송과 이 고마운 제도를 목숨 바쳐 수호해온 자가 맥락이 글이치는 그의 작품들은 맑고 깊은 생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과 신념의 아름다움 만세!』

라고 제목을 정히 써 가지고 보내왔다.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전쟁로

명과 농업연구원 농업경영연구소 실장, 남도시 온천군 안석리의 농장원과 청진에서 정양에 있는 땅에 집에 왔다가 편지를 쓴 70여년의 내년 통작품들을 써보면 사람들의 고향과

나이, 성별과 조건은 다르지만 미세를 단단하고 승리를 굳게 믿는 마음들은 한결 같았다.

인간의 사상과 열정의 산물인 문학에 솔직은 결코 한 사람의 흥분으로만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상정서적 축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 독자들이 폭발적인 창작력을 발휘하여 써보면 수많은 작품들에는 역사의 온갖 풍파에서도 탈 없이 우리 인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과 애착이 얼마나 끼운지를 알 수 있다.

운을 타고 지은 하나의 문

에 작품이 기전에 세상을 향해

버티지 않고서는 건립 수 없는

격렬한 서정의 고백이 이에 치우친다고 해야 할 그 작품들을 보면 평도자와 사회주의 조국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인민의 일상과 함께 한없이 고마운 당에 끝까지 충성하고

보답의 맹세가 용암처럼 깊어

나온 주민의 편지와 함께

제작된 작품들은 그 어디에

나온다. 그들이 주민으로서

제작한 작품들은 그들이

#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에 활력을 더해준 10월의 체육열 풍

##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2017

붉은 당기가 창공높이 휘날리  
는 10월의 국경강산에 거세한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2017이 일으킨 거세한 체육  
열풍, 경쟁열풍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수도 평양은 물론 저 멀리 조  
국의 북녘 경북도와 선서로부  
터에 분계선의 개성시에 이르  
기까지 어디 가나 전국도대항군  
중체육대 회소식으로 홍성이는  
속에 가슴벅찬 대회 기간의 하루  
하루가 훌쩍过去了。

온 나라 인민들과 체육애호가  
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  
황리에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  
체육대회 - 2017은 주체체육  
발전에 쌓아올려신 철새위인들의  
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 갈 우리 인민의 드  
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  
시한 의의 깊은 계기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  
적으로 추진하며 나라의 위력을  
를 강화하고 민족의 우수성을  
키워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평양시와 각  
도(직할시)에서 선발된 각계충  
근로자들과 가우녀성, 청소년학  
생들, 체육인들이 참가하여 축  
구, 풍구, 모형항공을 비롯한  
5개 종목의 전문체육부문 경기와  
체육유오락경기들을 진행하여  
서 연일 이채로운 화폭들을 펼  
치였다.

\* \* \*

전문체육부문 경기들에 참가한 각자체육인들은 평시에 뛰  
마한 육체기술, 전술적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훌륭한 경  
기모습들을 보여주었다.

10개 팀이 4개 조로 나뉘

어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고 조에  
서 1등을 한 4개 팀이 승자전  
의 방법으로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너자축구경기는 준결승경기  
에서부터 더욱 고조를 띠고 진  
행되었다.

경기마다에서 선수들은 당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밟았  
고 훈련의 날짜에 다지고 나온  
는 먼거리던 저녁기기기술과 몸  
폐기기술 등을 결합하면서 훌륭  
한 경기모습을 보여주었다.

남자용구경기에서는 평양시  
팀이 1등, 경북도팀이 2등,  
남포시팀이 3등을 하였다.

전문체육부문 경기들중에서  
제일 인기를 모은 것은 타구경기  
였다. 이번 타구경기에는 청소년  
체육학교 초급반, 소학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소학반  
남녀단식, 초급반 남녀단식, 초  
금반 혼성 복식경기로 진행되어  
팀에서는 듣든한 방어로부터 불  
의적인 역습승리를 펼쳤던 드임  
팀이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해  
나갔다.

맹렬한 공방전속에 평양시팀  
의 공격수인 장수영선수가 전반  
전 10분경에 멋진 차기로 점을  
넣은 것을 물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상대팀에게 품처럼  
드침기회를 주지 않고 편속공격  
을 들이밀면서 경기장을 평안남도  
팀에서는 듣든한 방어로부터 불  
의적인 역습승리를 펼쳤던 드임  
팀이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해  
나갔다.

여기에는 전개된 전문체육부문  
남자용구경기도 불만하였다.  
남자용구경기는 모든 참가단  
체들이 2개 조로 나뉘어 먼저  
조별련맹전을 진행하고 매 조에  
서 1, 2등을 차지한 팀들이 대  
각경기와 직선경기를, 나머지 팀  
들은 직선경기를 진행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경기에서 참가한 각 팀의 풍구  
선수들은 빠른 속도물기와 채치  
하는 능력을 펼쳤다. 정확한 던져넣기 등  
으로 편속 점수를 올려 판람자  
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평  
양시팀과 경북도팀 선수들은  
높은 면거리던 저녁기기기술과 몸  
폐기기술을 남김없이 밟혀 하였다.

남자용구경기에서는 평양시  
팀이 1등, 경북도팀이 2등,  
남포시팀이 3등을 하였다.

전문체육부문 경기들중에서  
제일 인기를 풍기면서 훌륭한 경  
기장을 펼쳤던 팀들은 그들만 당기자

조종경기에서는 평양시팀이  
1등, 강원도팀이 2등, 평안남  
도팀이 3등을 꺾하였다.

이번 대회의 전문체육부문 경  
기들은 주제조선의 명예를 금메  
달로 펼쳐갈 드높은 열의의 암고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는 체육선수들의 높은 정신력  
과 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시기 대황소상 전  
국민족씨름경기들에서 좋은 성  
적을 정착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평안북도의 리조원  
선수와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  
회에 처음 참가한 평양시선수와  
의 경기는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대회에서는 태권도와 씨름,  
청구경기에서도 종목의 대  
증체육부문 경기들도 성황리에  
진행되어 온 나라를 훤스는 거  
세한 체육열풍속에 최후승리를  
확정하였다.

대체로 체육부문 경기에서 사람  
들의 인기를 특별히 끈 것은 역  
시 씨름경기였다.

26일에 평양시팀과 평안북  
도팀사이에 전개된 씨름결승경  
기는 손에 땀을 쥐어 하면서도  
판람자들의 예상을 뒤집어엎으  
며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하여  
대회의 분위기를 더 한층 고조시  
키고 넓고 발전하는 민족체육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신진선수들로 푸르진 평양시  
팀은 예선경기부터 팀의 실력을  
쉽게 펼쳐갈 우리 인민의 불같

진출했고 평안북도팀 또한 판권  
1등, 강원도팀이 2등, 평안남  
도팀이 3등을 꺾하였다.

경기들에서 두 팀 선수들이  
자기들의 특기를 잘 살려 멀진  
장면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응원  
자들과 판람자들은 열렬한 박수  
를 보내주었다.

특히 지난 시기 대황소상 전  
국민족씨름경기들에서 좋은 성  
적을 정착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평안북도의 리조원  
선수와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  
회에 처음 참가한 평양시선수와  
의 경기는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종합성적에서는 평양시팀이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를 보여 온 수많은 평양시  
민들과 응원자들은 자신들의 높  
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 고상한  
경기정신으로 민족체육의 우수  
성을 힘있게 파악한 두 팀 선수  
들의 경기성과를 열렬히 축하해  
주었다.

26일에 평양시팀과 평안북  
도팀사이에 전개된 씨름결승경  
기는 손에 땀을 쥐어 하면서도  
판람자들의 예상을 뒤집어엎으  
며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하여  
대회의 분위기를 더 한층 고조시  
키고 넓고 발전하는 민족체육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온 나라를 훤스는 태권도화하고 훤  
도의 기상을 온 세계에 자랑스  
럽게 펼쳐갈 우리 인민의 불같

않습니다. 저 열기면 응원자들,  
몸은 조국땅 한 곳에 있어도 시  
기장에서 남김없이 파  
시되었다.

단체를, 맞서기 등 태권도경기  
들에서 어려 가지 기술통작들을  
능숙하게 수행하면서 훌륭한 경  
기장을 펼쳐보여 판람자들로부터  
주는 시당위원회일군들과 라선  
시민민들의 그 마음들을 알고  
우리는 반드시 좋은 성과를 이  
롭할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경기성과에 조  
금도 자만하지 않고 대중체육활  
동에 언제나 앞장서나감으로써  
혁명적량민을 더 활짝 꽂고 우고  
보다 높은 모리적성과를 이룩해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  
졌다.

이들은 오늘의 경기성과에 조  
금도 자만하지 않고 대중체육활  
동에 언제나 앞장서나감으로써  
혁명적량민을 더 활짝 꽂고 우고  
보다 높은 모리적성과를 이룩해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  
졌다.

에게 정구도 배워주면서 집단의  
체육열의를 고조시켰고 휴식일  
이면 끊임에 휴식일 정구장들에  
서 정구보급활동에도 적극 참가  
하여 당시 대중체육방침을 앞장  
해서 관찰해 왔다. 또다시 우  
승의 영예를 지난 평양시팀 선  
수들도 끌었는 환희에 훌륭이 있  
었다.

이들은 오늘의 경기성과에 조  
금도 자만하지 않고 대중체육활  
동에 언제나 앞장서나감으로써  
혁명적량민을 더 활짝 꽂고 우고  
보다 높은 모리적성과를 이룩해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  
졌다.

이들은 오늘의 경기성과에 조  
금도 자만하지 않고 대중체육활  
동에 언제나 앞장서나감으로써  
혁명적량민을 더 활짝 꽂고 우고  
보다 높은 모리적성과를 이룩해  
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  
졌다.

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2차  
전원회의에서 대시된 전투적과  
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떠들어진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주동하여 내  
조국의 10월을 더 머우 훤스를  
제 7기 대회 - 2017은 우리 당의 체  
육을 강화하고 국경건설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 계기로 되었다.

그러면서 김정미, 렘진동우  
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선수들이  
함께 일하는 자기 단위 종업원들  
를 끌었고 사전 본사기자 김성민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에서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종합성적에서는 평양시팀이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에서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종합성적에서는 평양시팀이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에서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종합성적에서는 평양시팀이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에서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종합성적에서는 평양시팀이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에서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종합성적에서는 평양시팀이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에서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종합성적에서는 평양시팀이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에서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완

전히 뒤집고 평양시의 신진선수

가 평안북도의 씨름명수를 멀지

게 여기자 판람석에 여기저기에서

는 탄성이 터져 올랐다.

종합성적에서는 평양시팀이

이집계도 이기지 못했지만 결승

경기에서 씨름경기의 절정을

이

